

2019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요일) 14:00 ~ 15:0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유희철, 윤영상, 이동현, 이인재, 김용우, 이문선, 박지석, 이태풍 위원

○ 불참자 : 최백렬, 이동호, 조재영, 홍철운, 오한모, 이홍래 위원

○ 상정안건

-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주요안건은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8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회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성일) 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니까 지방자치 (양규혁) 단체 이전수입이 전체에서 12억 정도밖에 안되네요. 우리가 지역거점대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같은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런 추세인가요?

재무과장 : 원래는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저희가 국가기관이다보니까 상급기관 (박성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주게 된다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교부세가 깎이거나 합니다. 다만 저희가 받아오고 있는 것은 언어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위탁과정 사업비 공모에서 따오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위탁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큰사람교육개발원 할 때 일부 20억 정도 돈을 썼거든요.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이런 형태로 밖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오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도 패널티를 부과 받으니까 자치단체도 힘들습니다.

재무과장 :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학연구프라자가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전라북도하
(박성일) 고 전주시하고 대응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 저는 지역사회하고 협력은 많이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으로 되어있어서 어렵
(양규혁) 다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유가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선심성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박성일) 에 못을 박았고, 내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50억씩 그쪽에서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국회에
서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예산안이 있는데 보편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인재)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요.

재무과장 :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별로 증액된 것이 비목별로 나왔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105억 45백만원이
(이인재) 현재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알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을
(박성일) 보면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학교교
육여건개선을 보시면 72억이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여기보시면 BTL임차
료 같은 경우는 1억이 줄어들었고, 46페이지 보시면 일부 감액된 것도
있지만 실험실이 강의실 여건개선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
니다. 2020년 실험실 안전예산이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하^구 82.1 억 정도
가 교육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와^고 실험실 안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쪽 산단에 실험실 안전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에서 이제 각 245개의 실
험실을 조사를 해서 그쪽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 실험실습기자재같은 경우에는 각 단과대별로 저희가 요
청을 받아서 분배를 하는 것이 한 16억27백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치대
임상술기센터 장비구축으로 목적지정해서 8억18백만원을 치대 쪽으로 써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약대 실습장비 14억97백만원은 약대에서 계획
서를 받아서 집행은 해줄 계획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목적지정으로 내려오는 사
업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원 :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편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인재)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어떤 토대로 이런 결정을 어떤 목적사업에 얼마만큼을
지출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교가 많은 만큼 사정도 다를 텐데 그것을 일괄
적으로 만들어서 경비를 만들어서 지출하게 하면 예산지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
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 저희가 계속 이것보다 액수를 더 많이 교육부에 신청하죠.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박성일) 라 사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실험실같은경우는 작년 비해서
한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이 계속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비구입비만 주지 말고
(박성일) 실질적으로 수선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 5%나 10%는 수선유지비로 좀 쓰면은
기존 우리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계속 교육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우리 대학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대학에서는 자산취득비로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것을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연대대에서도 저한
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건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총괄표를 보면 본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이인재) 92.9%고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72.7% 그 다음에 대학에서 사용하는 예산
이 1.9%입니다. 각각 대학예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불과 몇 억에 해당됩니다. 근
데 사실 목적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대학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다는 것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 목적을 정해서 사용하는 돈에 제
약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대학을 어떻게 발전
시키느냐가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각 단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본부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적다는 것은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분권이
라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즉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에 문제인대요. 그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아닙니까? 예산에 쓰임새하고 먼 곳 즉 본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차제에 예산에 많은 부분이 각 단대로
나누어져서 또는 단대에서 각 학과로 나누어져서 정말 필요가 있는데 쓰도록 하
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분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박성일) 에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혁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부에 혁신
지원사업단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각 단과대학으로 돈을 내려줍니
다. 예산을 재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편성자체는 그 기관에서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는곳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과대학 별로 많은 데는 2억, 3
억 이런 식으로 돈을 내려줘서 단과대학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혁신지원사업단, 국립대학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기획처가 주
관만 할 뿐이지 실제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단과대별로 돈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 원 :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만 해
(이인재) 도 재무과에서 복합기 머신을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머 그런 것이 었었고요. 또 공
기 청정기라는 문제, 그 다음에 가끔 보면은 학과 사무실에 복사기 등이 재무과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것들이 구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돈을 재무과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필요
한 학과에서 정말 필요한 것 그니까 학과에서 사실 복합기 머신이나 또는 복사기
나 공기청정기 말고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위 원 : 근데 그런 우선순위를 학과에서 정하도록 해주지 왜 그것을 학과에서 먼 재무과 (이인재) 나 총무과나 이런 먼데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 그것은 목적지정사업비로 교육부에서 책결상이라든가 내년에도 4억3천만원을 받아 (박성일) 왔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 지정되어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국정과제라고 해서 단과대학 위주로 줄 것은 다 준거고 그 외에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30%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은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한 1,02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조달가에 51%에 낙찰에 되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요. 이것이 MAS2단계 경쟁 형태로 가는 거고, 이제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학부장 워크숍이나 하게 되면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다 올라옵니다. 교수님들이 건의사항을 총장님에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교육부에 별도의 행정장비 교체 비용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돈이 내려왔을 때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건의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업비를 한 5억, 10억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 쪽에 가서 그런 사업비를 하나씩 받아들 수 있도록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제 말씀은 그 사업비가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복사기를 살 테니 몇 억을 달라 이 (이인재) 런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과에서 공기청정기나 복사기나 복합기 머신보다 더 급한 더 필요한 것들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복사기 말고는 따로 지출할 방법이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에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3년, 4년 돼서 아직 쓸모가 있는데도 사준다니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사기가 50%로 싸게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낭비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요지거든요.

재무과장 : 그런 것은 저희가 내용연수를 다 따져서 합니다.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따올 때 (박성일) 저희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대로 별도로 15억을 받아온 것도 약대로 20억을 제출했는데 15억 정도를 받아왔고요. 거기서 저희가 책결상을 더 요구를 했는데 4억3천만 원 정도를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육부에서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형태로 돈을 주는 각 대학별로 일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학이 조금 돈을 많이 받아온 편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취합한 다음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 이상이 된 것을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자연대에서도 복사기도 요구했던 곳이 두 군데였거든요. 거기하고 책결상하고 요구를 해서 그것은 그때 하고나서 완료가 되었다라고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과가 많아서 자연대 내에서 조정이 안 되는 (양규혁) 모양이죠? 상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적어서 대개 상대 학장 주관화에 상대예산으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위 원 :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의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산을 받아 (이인재) 서 직접 사는 것과 예산을 정말 지출에서 집행하는 곳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학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요. 그 집행을 감시하는 것은 재무과가 맞습니다. 근데 재무과가 직접 나와서 그것을 구매를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위 원 :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품목까지는 지정 (윤영상)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재무과장 : 강의실 여건개선이라고 해서 책상, 의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박성일)

위 원 : 이인재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윤영상)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 그니까 목적 사업을 따왔을 때 목적이랄지 용도만 부합한다면 실제로 품목을 짜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사조직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취지거든요.

재무과장 : 저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결정하냐면요. 학과장 워크숍, 학무위원 워크숍 이렇 (박성일) 게 하면은 각 단과대학에서 건의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 금액이 교육부에다 요구할 때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속 교육부에 요청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온 것이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씩 자산취득비를 받아와서 책결상 같은 경우도 올해도 5억 정도를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 것도 4억3천만원 책결상비용으로 받아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전자장비도 요구를 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이런 형태 그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형태를 보면은 어떤 사업이나 교육과정에 당위성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요구를 할 때 교육부에서는 사업하나당 대학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 사실 이 문제는 조금 회계적으로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 (양규혁) 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분권화를 해가지고 운영하려면 회계보고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배분하는 것이 교수 인건비만 해도 각 단과대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그래야 단과대학에서 어느 정도 쓰고, 예를 들어 도서관예산은 단과대학 공통비일꺼고 그런거 작업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보고서를 제대로 분권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재무과장 :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 (박성일) 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건의한 사항도 저희가 항상 피드백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그전에는 단과대학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대학혁신사업이 (윤영상) 나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서 편성은 본부로 다 돼있죠. 상당부분이 단과대학 혹은 학과로 내려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다 그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취지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총장님 취지도 혁신이나 정부재정지원사업 (박성일) 을 예전까지 본부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 현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가는 건 안 되지만 부서운영비나 실험실습비는 매년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도 해년마다 3%씩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단과대학에서 돈이 없어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원 : 한 가지 여쭙보는것과 동시에 제안을 해드리는건데요. 시설확충인가요? 거기보면은 (이동현) 의생명융합관도 있고, 국제컨벤션센터도 있고, 기존에 다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산학융합관이 추진할 예정인대요. 아마 총장님 입장이나 또는 본부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좀 큰 건물같은거를 세워야지 뭘 한 것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만드는 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총장님 비롯해서 국회도 가시고 교육부에 가시고 기재부 가시고 그러신데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학교에 거의 무너져가는 건물들이 30년 넘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있는 자연대 1호관도 30년 쯤 되었고 CK사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강의실 조금 고치고 창틀도 한 번씩 고쳐주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전반적으로는 개선은 안 되고 좀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1년에 한두 개는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노후화된 건물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두 개를 하면 한 30년 걸리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건물들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몇 년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어도 건물전체를 수선하는 것은 하나도 제가 본적이 없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여쭙보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 교육부에서 원칙이 시설비는 일교일 사업이거든요. 근데 원래 신축은 안 주 (박성일)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산학융합관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던 게 약대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 날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이나 이쪽으로 가야되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약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 이런 형태로 가야되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국회에서 치대같은 경우 이번에 32억을 따온 것이 거기서 따왔고요.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수, 오수관이 우리 학교만 유일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해도 38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되는 현상도 있고 리모델링은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리모델링은 받아주는데 신축건물은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하나 들어가고 국회가서 하나 더 타오고, 한두 개씩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원 :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건물 실태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이동현) 습니다.

재무과장 : 그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있고 우선순위를 나중에 결정을 하실 겁니다.

(박성일) 그것은 아마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나중에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거의 될 것 같고 저도 리모델링으로 앞으로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대부분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거점국립대학 돌아다니다보면 우리학교처럼 노후 건
(이동현) 물이 많은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군산대만 가도 저기는 최근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하지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자꾸
유치해서 전기값, 운영비 나가는 것도 지양하고 정말 리모델링으로 초점을 맞추었
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위원장 : 교육부도 정책을 그렇게 바꾸었다니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본부 리모델링 계획도

(양규혁) 그 일환입니까?

재무과장 : 본부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원래 작년부터는 리모델링

(박성일) 이었거든요. 본부도 전체 리모델링 형태고 올해도 리모델링으로 하나 신
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약대것에 일부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I 기초과학연구분원 건물도 리모델링도 하면서 짓고 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
한테 이번에는 약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부에서 예외로 기재부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 리모델링에 증축을 더 해가지고 건물규모도 키우고 자잘한 것들 여러 개 가지고

(양규혁) 있는 것보다도 큰 규모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 의대도 의생명융합관이 전체 자동으로 그런 형태거든요.

(박성일)

위 원 :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생명융합관이 기정예산이 감축이 된 이유가

(유희철)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올해 집행을 못할 것을 교육부에서 가져간

(박성일)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위 원 : 그리고 교육활동운영지원에서 보면 취업 및 창업활성화로 3억 7천정도가

(유희철)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세출계획을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
가 없어서요.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 이번에 들어온 돈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예산인거고요. 기존에 편성되어있는

(박성일) 것입니다.

위 원 : 공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학재원, 평가재원이 있는데요.

(윤영상) 그것은 공대에서는 추가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부처로 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 그걸 원래는 기획처에서 처음 협의를 할 때 육성사업에서 돌려가지고 하는

(박성일)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업비를 처음부터 공대에서 요구를 안 해버리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위 원 : 근데 하기는 해야 되니까 논의 끝에는 총장님으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
(윤영상) 정을 한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 제가 그래서 육성사업에서 그 정도 돈을 자산취득비를 주면 그 돈으로 저희
(박성일) 가 대체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총장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만큼 돈이 나와야 저희가 대체
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 원 : 대학 혁신사업에서 지금 재무과로 넘긴 것이 총 9억 가까이 되죠?
(윤영상)

재무과장 : 8억3천만원 정도인데요. 그것은 이미 연구비 대응투자가 8억5천만원 정도가
(박성일) 증액을 되버렸습니다. 그니까 연구비 대응투자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연구비 수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위 원 : 그것은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쓰셨는데 육성사업에서 안되면
(윤영상) 다른 사업에서라도 해서 사업비에서 교비수요를 충족해주시던가 해야지 일
단은 당장 필요한데 편성을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 연구비 대응투자는 혁신단장님하고 총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돈을
(박성일) 줘서 8억5천만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때 당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니까 8억3천만원 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비 대응투자가 6억7천만원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전용해서 그때 그 돈 2억을 납부 안
하면 연구비 100억짜리가 취소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메꿔서
정리를 해준 것이 8억이 넘습니다.

위 원 : 그러면 공대는 공학인증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1/17

(윤영상)

재무과장 : 주요사업비 심의부서가 기획처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해줄 수 없는 상황
(박성일) 입니다.

위 원 : 근게 그것은 신청도 안한 것을 그때 옛날에 놓쳤다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
(윤영상)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 똑같이 육성사업에서 대체하실 금액을 찾으시면 가능합니다.

(박성일)

위 원 : 그러면 육성사업이 아니고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여력이 있는데서 마련해드
(윤영상) 리면 되나요?

재무과장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 거죠.

(박성일)

위 원 :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영상)

재무과장 : 방법을 찾으시면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되겠죠. 저희
(박성일) 가 다른데서 돈을 빼서 드리면 그쪽도 돈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위원장 :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양규혁) 이번에 시간강사제도 바뀌면서 강사 관련된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 강사료는 일단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내려오진 않았고요. 다만 방
(박성일) 학 때 4주 전 후 이것은 되어있고, 단가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많
게는 올라가지는 않고요. 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전업하고 비전업하고 차
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업강사 같은 경우는 8만8천원 정도 되고 비전
업은 3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할
건지 상향평준화를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
니다.

위원장 :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학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양규혁)

재무과장 : 원래는 1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교육부에서 그 정도는 학보를 일부를 했으면 했는
(박성일) 데 저희는 이제 1회추경때에 그 부족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될지
하향이 될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고요.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
것에 따라서 뭔가 내려와야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 형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
액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 교수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짝 묶어놓고 학교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양규혁) 제도들이 만들어진다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
다.

위원장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분 안계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이번에 약학대학 유치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신설이 되는 것들이 많고 하는
(박지석) 데 ~~이~~ 전에 아까 말씀나온것처럼 기존의 시설물의 안전 상태라든가 이번에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조소과 학생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행정실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미
루고 하다가 올해에 절단사고가 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도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다시 건의를 했을 때 돈이 없다는 대답만
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는 이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
도 있지만은 안전장비에 대한 확보도 확실히 되는 건지, 예술대학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실험실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센터에서 전체 실험실을 관리합니다. 내년에
(박성일) 들어온 실험실 안전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장비 같
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실험실 안전센터에서 각 단과대학에서 원
하는 형태로 교체를 해주겠죠? 그 부분은 그 때 조사를 할 때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 안전센터에서 직접 전체 돌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안전예산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일부를 주는데 하도 공간이 많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이렇게 밖에
올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확
정이 되고 그 예술대 부분은 안전센터 쪽에 얘기를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하
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양규혁)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분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양규혁)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위원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전원 찬성

위원장 :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
(양규혁)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양규혁) 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
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이인재, 김용우,
박지석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이인재, 김용우, 박지석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해주실 대표 위원으로 이인재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양규혁) 박지석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양규혁)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김강욱) 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9. 10. 25.(금)

위원장 : 양 규 혁 (인)

간 사 : 김 강 욱 (인)

기 록 자 : 김 선 응 (인)